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강원훈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선 박순철

광양시 마동정수장, 견학지로 인기

소수력 발전과 태양광발전 동시 이용...연간 5천만 원 절감 학생·공무원 등 400여 명 방문 수돗물 정수과정 등 살펴봐

광양시 마동정수장이 친환경정수장 견학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마동정수장에서는 마동정수장 착수정 전단에 수어택과 마동정수장 착수정과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시설과 유틸부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소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이용하는 정수장이 많지 않아 유서된 어린이들의 신재생에너지 교육장은 물론 정수장을 방문하는 상수도관련 공무원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2016년부터 유치원과 학생, 공무원 등 4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지난 13일과 14일 2일간 광영혜화유치원 유치원 138명이 마동정수장을



견학했다. 방문한 어린이들은 착수정과 혼화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등 수돗물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깨끗한 물

로 정수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만화 동영상 시청했다. 이어, 수돗물을 시음해 보고 태양광시설과 소수력발전시설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과정도 살펴봤다. 이외에도 오는 8월 12일에는 제주시 청년연합회와 다임변 청년회 30여 명이 마동정수장 소수력발전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규광 상수도과장은 "오는 9월 목표로 100kw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환경정수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동정수장에서는 시설용량 5만톤/일로 중미동 등 광양동부지역에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인 70kw 소수력발전시설과 100kw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용해 연간 5천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반려 산업 문화재활용 담당 '신설'

순천시는 최근자로 12담당을 신설하고 9담당의 명칭을 변경했으며,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반려산업, 문화재활용 담당이 눈길을 끈다.

동물영양제와 정원산업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식물 분야를 선점한 순천시는 이를 산업화하는 전담조직 반려산업담당을 신설했다. 또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신안사·순천만·낙안을 등재시키고, 정유제단 7주갑 기념사업, 가야문화권 발전사업 등 문화유산 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문화재활용담당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됐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흐름을 선도하고, 2020년에 개관 예정인 잡월드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스마트시티담당도 투자유치과에 신설됐다.

더불어 식도락 관광과 음식테마 거리를 추진할 음식관광담당, 아동친화도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아동친화담당,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생활지원담당, 순천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학교급식담당도 신설되어 시대흐름에 맞춘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 국화향연, 군 대표 축제 격상 준비 '한창'

화순군은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도심속 국화향연'을 불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군 대표 축제로 격상해 준비가 한창이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17일간 화순을 낀 일원에서 '도심속 국화향연'이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을 형상화한 고인돌 게이트와 광배바위 등 더욱 다채로운 국화조형물이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13일, 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화향연 기본 계획안을 심의했다.

축제는 고인돌 전통시장, 성인벽 화마 등과 연계해 지난해보다 볼거리, 먹거리, 체험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야간 산책의 운치를 더할 '국화야(夜) 거리', 화순에서 생을 마감한 김삿갓 등 선비들의 풍류를 되새겨 볼 '남도주막', 늦가을 정취를 더할 길거리 공연 등은 가을의 낭만을 한껏 고조시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 2015년 구성된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는 올해 임기가 만료됐으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김태룡 위원장을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 학계와 문화예술인 등 25명으로 구성돼 2년의 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조기 암 검진 받고 건강 지킵시다"

나주시보건소, '암 예방교육' 실시

나주시 보건소는 암 예방과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13일, 영산포농협에서 암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암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 조기검진의 중요성, 의료비 지원사항, 재가입환자 관리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암 예방수칙으로 금연과 절주, 채소·과일의 충분한

섭취 및 균형 잡힌 식단, 탄 음식 식용 자제, 주 5회-하루 30분 운동하기 등 일상생활 속 수칙을 비롯해, 간염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암 조기검진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납부금이 89,000원 미만인 경우,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을 시 3년 간 200만원 씩 최대 600만원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가 암환자 대상으로 등록되면 방문 간호사가 주기적인 의료관리, 식사 대응

품, 영양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전남지역 암센터 통계를 의하면 나주시는 폐암,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간암 순으로 연 547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5년 생존율은 남성의 경우 57.1%, 여자는 70.1%로 나타났다. 서구화된 식습관, 흡연, 음주, 유전, 감염 등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간규 나주시장은 "조기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우편발송, SMS문자서비스,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와 오늘과 같은 예방교육을 통해 암 조기 검진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양교육지원청, 멘토링 집단 프로그램 진행



광양교육지원청은 최근 2017년 꿈키움멘토단 32명(멘토12명, 멘티 20명)과 함께 참 만남, 벗과 함께 멘토링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광양 꿈키움 멘토단은 멘토와 멘티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사회

적용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성취 및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라쿠치나 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마스터 셰프 체험과 삼진어묵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소개, 식품 유통 과정 현장 경험 등 다양한 직업 체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프로그램 중 멘토-멘티만의 시간을 마련하여 양질의 멘토링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임원재 교육장은 "학생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멘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아가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꿈키움 멘토단이 멘티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교육지원청·학교·지역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성장을 힘써 돕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부처재본부장=김승호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한 여름 밤의 물빛축제

내달 31일까지 개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무더운 여름 밤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한 여름 밤의 물빛축제'를 14일 저녁 8시 물론 호수정원 일원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한 여름 밤의 물빛축제는 여름, 정원, 밤을 배경으로 8월 31일까지 매일 저녁에 개최되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새로운 축제로 이날 라이트 가든 점등식을 시작으로 물, 빛, 음악이 어우러진 화려한 워터라이팅쇼가 진행됐다.

정원 경관과 조화를 이뤄 설치된 라이트 가든은 야간 국가정원민의 포토존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고, 특히 15분간 진행된 워터라이팅 쇼는 화려한 빛과 음악, 분수 공연이 환상적으로 연출됨으로써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물빛축제는 라이트 가든 연출과 워터라이팅 쇼와 더불어 버스킹, 마술 등의 공연, 꿈틀정원에서 식물공

장 옆 행사장까지 이어지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운영되며, 수국과 장미를 수국원과 장미 미로정원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부대행사로 반딧불 체험행사, 가변 무도회, DJ페스티벌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워터라이팅쇼는 매일 저녁 8:30, 9:00, 9:30 1일 3회 15분씩 빔 무빙, 디지털 분수, 레이저 쇼, 불꽃놀이가 음악에 맞춰 환상적으로 연출되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식당, 매점, 스낵바 6개소가 운영된다.

물빛축제는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개최되며, 야간 입장료는 저녁 6시부터 가능하다.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순천시민은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는 무료이다. 단, 시민 1년 회원권 소지자는 주·야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국가건강검진

- 혈관 건강검진
- 생체전환기 건강검진
- 행유아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건강검진 받지 않는 사람	건강검진 받은 사람
42%p 감소	18%p 감소

보건복지부 | 읍면별 24시간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